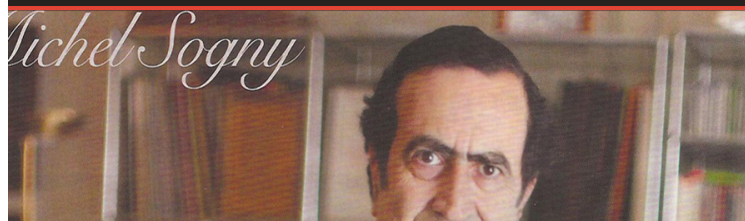


THE PIANO

No.362 2012. 05 The Best Publication in Piano Music 피아노음악

이경숙 · 김규연



Michel Sogny

고통 없는
음악교육을
위하여

"나의 교육철학은 테크닉이라 부르는 이러한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음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미셸 소냐

김동준(재발음악평론가, 피아니스트, 오케스트라 지휘자)



당신이 생각하는 음악적 재능이란 어떤 것인가? 경험을 통해서 말해 달라. 내 생각에 음악적 재능도 우선 음악 자체를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명 없이도 어떤 의미를 음악 속에서 느끼는 것이야말로 음악적 재능이다. 그러니까 음악에서 감동을 받고, 그것스럽게 느끼는 것을 나는 음악적 재능으로 여긴다. 그 대한 재능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 어떤 이는 어떤에 남다른 재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정 악기나 스러운 관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당연히 발전은 훨씬 리고 내 생각에 사람들이 말하는 신동은, 그러니까 초신동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3~4년 발전 속도가 빠를 리니까 보통의 학생들이 14년에 이루는 것을 10년 정도다. 내 경험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일수록 연습을 하든 적은 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때문이다.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10세 무렵까지는 다 비해서 훨씬 앞서 있으나, 14세 무렵이 되면 그 차이가 3세 무렵이 되면 결국은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린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것이다. 그들은 자극이 없으면, 금세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평범한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전은 어떤 면에 어 있는 셈이다.

결국, 열정과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음한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절친한 친구인 알도 치올리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곤 각에는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 나는 연습한다, 고로 다인 것이다. 연습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이 연습 자체가 열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종종 재능 있는 습과 노력 자체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중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발전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르이든 예술의 특성상 끝이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 내가 최고이다. 면 그 이후에 남는 것은 퇴보하는 것뿐이다. 나는 아르투 인 · 게오르그 치프라 등의 피아니스트들과 우정을 나누 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충실하게 연 멀리 나갈 것을 추구했다.

가인 미셸 제바코의 딸이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미셸 제바코 가 젊은 시절에 매우 좋아했던 작가였다. 당시 나는 매우 분주한 를 보내고 있었지만, 미셸 제바코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녀에게 노 레슨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기었고, 미셸 파리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아주 어렸을 적 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피아노 전히 중단한 상태였다.

와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녀도 상젤리제 극장에서 화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미셸 파리스의 경우처럼 그녀 재, 그러니까 성인 천재라고 본다. 다만 표현할 기회를 이전에는 못했을 따름이다. 물론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은 고작해야 결국 두 명의 성인 천재 피아니스트들을 키워냈을 이지 않은가라고. 그러나 최근 수세기 동안 음악계에는 이런 일 있다는 것을 본다면, 나의 20년이 넘는 교육자로서의 경력에서 두 피아니스트는 결코 적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 의 주된 목적도 아니다. 나의 목적은 피아노를 배우고, 연주할

미셸 소냐와의 인터뷰는 지난 2011년 11월 1일 파리

05
9 771227 24 1002
ISSN 1227-2418